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7:1-6(현대인의 성경)

1. 말씀

- 1 형제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 2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 3 남편이 살아 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 4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 5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 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은 율법이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중 "율법적 신앙" (형식, 규칙, 의무에 매여 있는 신앙)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주는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 _____

- 율법과 결혼한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 (5절) 예수를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4절)

→ _____

-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은 맺고 싶은 열매는 어떤 것인가요?

→ _____

- 나의 삶에서 여전히 율법적인 의무나 규칙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억눌린 부분은 무엇인가요?

→ _____

- 죄의 종으로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말하나요?(19절)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열매'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반대로 의의 종으로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19절)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맺고 있는 '새로운 열매'는 무엇인가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6절에서 소개한 율법의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삶에서 "성령께 순종하는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7:1-6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본문은 결혼의 비유를 통해, 정죄와 심판의 근거가 되었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리를 설명합니다. 즉,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던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제는 옛날처럼 율법의 조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유라는 말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어떤 종류의 자유는 그냥 주어지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자유 외에도 우리에게서 여러 종류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이 자유는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의와 선을 행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연약해 질 수 있으나 낙심치 않고 담대히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자유의 힘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갈 5;15)!"

6. 기도